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말씀 히브리서 5:11-6:20

요절 히브리서 6:1,2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 히브리 신자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장하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어린 아이상태에 머물러 있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의 신앙이 보다 성숙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 소원과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I. 마땅히 지각을 사용하여 성경선생이 되어야 합니다.(5:11-14)

5:11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앞서 10절에서 언급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이독경(牛耳讀經-소 귀에 경 읽기)처럼 히브리 신자들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slow to learn’으로 날 때부터 우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더디다는 뜻입니다. 배우는데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런 히브리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편지를 받은 시점은 신자들의 신앙공동체가 생긴 지 대략 3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성경선생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양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이 어려운 중에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성장하지 않는 점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태어난 아기는 4-5개월이 되면 뒤집기를 하고, 6-10개월이 되면 기거나 일어서고, 10-15개월이 되면 첫걸음마를 떼고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돌이 지난 아이가 걸을 생각을 안 하고 뒤집기도 못하고 누워 있기만 하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렇듯 성장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심각
면 성경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제자양성가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양들을 모아 요회를 개척하여 요회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영적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양을 섬기지 않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양 없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며 속으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요회 목자가 되는 것은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을 섬기라고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영적인 성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보십

시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먹는 음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우유를 끊고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우유가 좋다고 우유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뼈도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가 튼튼해지지 못하고 아무 것도 씹을 수 없게 됩니다. 위장이 운동을 하지 않아 결국 소화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평생 우유만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우유만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기분 좋게 하는 말만 좋아하다보니 단단한 말씀은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선물용으로 말씀이 적힌 액자를 사러 시중에 있는 기독교서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던가, 한 알의 썩는 밀알 또는 섬기는 종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적힌 액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대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8:7),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대상4:10) 주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들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소화하기 위해 크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만 좋아하면 성장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각이 연단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지각’(분별력, sense)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화기관과 같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지각이 연단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단’(연습, 훈련)이란 스포츠에서 잘 쓰는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익숙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경기를 보다 보면, ‘세트피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볼을 정지한 상태에서 서로 약속하고 플레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긴장한 상태에서 시합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면,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연습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한 세트 피스는 경기 중 기껏해야 한두 번 찾아오는데, 골을 넣을 확률은 아주 많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지각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닥치면, 대부분 훈련되지 않은 지각이 튀어나옵니다.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책망을 듣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앞으로 학교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과 두려움이 튀어나옵니다. 고난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때 지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이때 조금씩 고난이 소화가 되고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점차 지각이 연단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와 같은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 대신 연단된 지각을 사용하여 여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연단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살전5:16-18)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거부하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사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형벌 앞에서 어찌 그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세 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붙드셨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소화하시고 순종하고자 결심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신자들은 지각을 연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단지 불신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지각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성경 선생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II.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6:1-8)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볼 때, 히브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이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로서 6가지입니다. 첫째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이란 ‘acts that lead to death’로서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악한 죄와 인본적인 행실들입니다(갈5:19-21).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음란과 방종과 쾌락적인 죄와 이기적인 악한 행실들을 회개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과

거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여러 우상을 믿거나 심지어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과 학벌과 능력을 신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면 불신을 회개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요3:16). 이는 우리 기독교의 초보입니다. 셋째로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입니다. 넷째로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얻게 합니다. 다섯째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자는 죽은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섯째로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사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교리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도의 초보를 아는데 만족하고 더 이상의 영적 진보와 성숙의 방향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체가 없습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할 뿐입니다. 성장과 진보가 없으면 너무나 확고한 진리마저도 불신하게 되고 마침내 신앙이 무너져 파멸에 이릅니다.

저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과 방향을 주십니까?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저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초보에서 벗어나 완전한 데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perfect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준새번역에서는 ‘성숙한 경지’라고 했습니다. 영어성경에서도 maturity,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go on to maturity.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3: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누구나 처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함,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엡4:13),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벧후1:4). 우리가 양일 때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목자님에게 사랑 받고자 데모도 하고, 동역자들과 티격태격 싸울 때 많았습니다. 소감발표 순서에 내 이름이 나중에 나오면 빠치고, 연애감정에 시달리고, 유아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훈련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엿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한 양을 돕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지는 아픔도 겪습니다. 양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숙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즐기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먹기를 탐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자리를 청탁하던 유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합심해서 기도하며 동역하는 성숙한 자들이 됩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다이즘에 빠져 있던 그가 마음을 넓혀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로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증언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했던 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성장합니다.(벧전1:3,4)

지난 10월 3일에 시카고에서는 고 이사무엘선교사님의 선교정신을 기리는 기념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관악 3부 조재은 사모님이 인생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간질 발작을 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한 깊은 슬픔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UBF 성경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3학년 때 간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그리고 데모하다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대학생들이 불쌍해서, 캠퍼스 양들을 말씀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로 센타 옆에 있는 서울의대

양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1시간 30분 걸리는 관악 캠퍼스까지 가서 양들을 섬겼습니다. 한창 복음역사가 일어날 때 남편 조다윗 목자님이 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삼수생, 대학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집을 팔아 전셋집에 살면서 양들을 섬겼기 때문에 물질이 어려웠습니다. 또 미국선교사로 간 딸이 방황하여 8개월 동안 잠적해 버렸습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접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요한복음 14:1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헌신적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모지와 같던 서울대 캠퍼스에 125명이 예배를 드리며, 3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셨습니다. 잠적했던 딸도 돌아오고, 다른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 주셨습니다. 지금 67세이신데 매주 12팀 일대일을 하며, 매일 사모님들과 기도모임을 이루고 충성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여기서 ‘온전한 사람’(a perfect man)이란, 그리스도만큼 자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큼 자라고자 하는 소원이 강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 보면 늘 배고프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늘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늘 열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영적인 소원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얼마나 많은 제자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세계까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족하거나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데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초보단계를 벗어나 끊임없이 완전한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숙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데로 나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3) 완전한데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한데 나아가라는 것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담스러워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천재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냥 초보로 있겠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만 하면 완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초보에 머무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퇴보하게 되고 심지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4-6) 이처럼 초보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비가 자주 내릴 때, 땅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채소가 잘 자라는 땅이 있는 반면,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평과 불신과 원망의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버림받음과 저주와 불사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15:6) 우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타락하여 버림받음과 저주와 심판에 이를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III.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9-20)

히브리서 저자가 이와 같이 무섭게 심판을 경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도중에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신자들이 구원에 속한 증거로 과거나 지금이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구원에 속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목자 생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목자의 그늘 아래 목자의 섬김을 받는 양으로 남고자 합니다. 목자로 불러주려고 하면 나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삶은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목자 생활이 헛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것을 과연 기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삶보다 사랑으로 양들을 섬기는 목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신자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젊을 때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지런히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점점 뒷집을 지고 몸을 사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끝까지 동일하게 부지런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 받는 사람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브라함은 75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장막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신앙생활에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시다. 그 때마다 그는 오래 참고 믿음을 지켰습시다.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그가 이러한 믿음으로 99세의 나이에도 자기 집을 찾아 온 세 명의 나그네를 젊은 청년처럼 부지런히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맹세로써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뿔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말해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영혼의 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닻은 앵커(배를 한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밧줄이나 쇠줄에 매어 물에 던지는, 쇠나 나무 따위로 만든 무거운 물건)라고 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쇠덩어리를 말합니다. 닻을 내리고 있으면 배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신자는 이 소망에 굳게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힘들어도 초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에 갇혀 많은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손수 지으신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 목사님은 그 영혼의 닻이 천국에 닿아 있었습시다. 때문에 어떤 시련, 죽음의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았습시다. 후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도 양아들로 삼았습시다. 6.25때 피신할 수 있었지만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성숙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함의 수준입니다.(히11:38) 우리가 땅에 붙은 소망을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 히브리 신자들을 향하여 거센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편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유혹이 큰 파도처럼 들이쳤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의 닻이 굳게 잡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신자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을 정도의 신앙의 초보로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부담이 없고 고난이 없는 초보에 머물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초보로 살면 편합니다. 초보라고 하면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성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초보로 지내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완전한 데로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소망을 붙들고, 초보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